

여행

깊어가는 가을 여행

함평 자연생태공원의 국향대전



함평 자연생태공원 입구 1만여평에 조성된 국화밭을 거닐면 한껏 무르익은 가을을 만날 수 있다.

/함평=최현태기자 choi@kwangju.co.kr

만추의 향기, 온 몸에 스며든다



찾아가는 길

국화향기에 취하고 가을 정취에 빠져 밤 때도 잊었지만 그래도 배꼽시계를 외면할 수는 없다. 국화축제장에서 승용차로 5분 거리에 있는 갯배수산(대표 김준호·061-324-1177)에서는 무안에서 갓 잡은 신선한 세발낙지를 먹을 수 있다. 나무젓가락에 감아서 생 것으로 먹는 것이 좋지만 다진 후 참기름을 듬뿍 돌려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다. 산 낙지를 먹는 후에는 속이 시원해지는 연포탕에 밥 한 그릇이 반반씩스럽다. 세발낙지 3마리 1만원, 연포탕 2만원, 대 3만원.

가을이 무르익다 못해 북 건드려면 그대로 쓰러져 품안에 안겨버릴 것만 같다. 가로수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 제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게 오르고, 길가엔 낙엽이 수북히 깔려 가을 정취를 고조시킨다. 만추의 향기에 취할 수 있는 곳, 가을이 익어가는 이 즈음 이런 곳에 가서 마지막으로 치닫는 올 한해를 되돌아 봐도 좋을 듯하다. 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일대는 노랗고, 빨갛고, 하얀 꽃물결이 일렁이고 있다. 석양에 비친 꽃밭은 신선의 세계가 이룬 곳이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들게 한다.

함평자연생태공원 일대는 지금 국화로 덮여 있다. 꽃대밭에 달린 꽃망울에선 노랗고, 하얀 잎이 벌어져 벌써 꽃잎을 떨 굴 지경이다. 지난날 27일부터 '2006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벌이고 있는 국화 밭은 이번 주말 절정을 이룬 자태를 뽐낸다.

12일까지 함평천지서 국화잔치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국향대전은 벌써부터 입소문을 타고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갔다. 행사장 입구에 들어서면 오른쪽에 절정을 향해 치달리는 국화밭이 조성돼 있다. 1만여평 부지에 노랗고, 하얗고, 빨간 국화꽃이 가을의 이야기를 속삭인다. 가을 바람을 타고 오는 짙은 향기는 코끝을 간지러며 온 몸을 돌아 가을의 한 가운데 있음을 느끼게 한다. 원숙하고 기품 있는 누님과도 같은 국화. 따뜻한 봄

별과 화려하고 변화 많은 여름을 다 보내고 싱그러움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에 특히 차가운 이슬과 서리가 내릴 때 더 아름다워 지는 이 꽃은 원산지가 중국이어서 더 동양적인 느낌을 준다.

여기저기서 서터누르는 소리가 바쁘다. 아직 관람의 시작에 불과하지만 발걸음 떠나지 않는다. 연인끼리 가족끼리 나들이 나온 이들의 얼굴은 이내 가을빛으로 물들어 버린다. 꽃밭 위쪽에는 직접 국화를 따서 국화차를 마실 수 있는 체험장도 마련돼 있다.

꽃밭을 나서면 서를 버스를 통해 생태공원에 조성된 전시장에서 또 다른 국화의 멋에 빠질 수 있다. 전국 국화 동호회 회원들이 틈틈이 정성을 기울여 길러온 국화 분재가 감탄사를 터뜨리게 한다.

옛부터 문인 목객들이 국화를 사군자 하나로서 그 고풍하고 품위있는 덕성을 시조나 시를 지어 칭송할 수 밖에 없었음을 느끼게 한다.

여기서 조금만 발걸음을 옮기면 국화 전시관의 '백미'인 '한대작'과 '다륜대작'을 만날 수 있다. 현대대작이란 소국을 이용해 한뿌리에서 자란 잎들을 대나무로 길게 늘어뜨리는 것을 말하고, 다륜대작은 대국을 이용해 크게 만드는 것을 이른다. 다륜대작 중 9간을 넘게 만드는 것은 함평 국향대전에서만 볼 수 있는 진귀한 장면이다.

황산, 옥광호, 화불, 귀부인, 황공작 등 이름도 다 기억하기 힘든 국화꽃이 환하게 반긴다. 지난 9월부터 함평농업기술센터에서 1년여를 걸쳐 가꿔 관람객 앞에 그 자태를 드러냈다.

이순영 함평농업기술센터 과장은 "지난 9월부터 작품들을 준비했으며 함평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새

품종들을 선보이게 돼 기쁘다"며 "계속 새로운 품종을 연구·개발해 내년에는 또 다른 국화작품들로 가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지도 모습과 지구본등 국화를 이용해 만든 작품들이 마음속에 잠자던 시심을 깨운다. 비탈진 들녘 언덕에 누가 없었던들 가을은 얼마나 쓸쓸했을까/아무도 너를 여왕이라 부르지 않건만 봄의 화려한 동산을 사랑하고/이름도 모를 풀들에 섞여/외로운 계절을 홀로 지키는 빈 들의 색시여/.....

다륜대작 등 진귀한 국화 만발

노천명 시인의 '들국화'다. 누가 없었던 들 가을은 얼마나 쓸쓸했을까. 하는 구절은 국화가 가을의 '백미'임을 찬미하고 있다.

작품에 취하고 국향에 취해 발걸음을 옮기면 '사동마을부녀회'에서 직접 만든 국화청주가 발길을 잡는다. 한 잔 기울이면 입안에 퍼지는 국향에 금새 온 몸이 노랗게 물드는 것 같다.

흥얼거리는 흥취가 깨기 전에 '국화 꽃심'에서 마지막 국화 잔치를 즐겨보자. 허수아비가 있고, 감나무, 수수와 갈대등이 국화 꽃밭과 어울려 가을잔치를 벌인다.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부터소 쪼개는 그렇게 울고' '또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며' '간밤에 무서리가 내리고 내게 잠도 오지 않았다'는 미망의 시가 국화향과 함께 깊어가는 가을을 아쉬워 하고 있다. /함평=최현태기자 lion@kwangju.co.kr



한국의 기와를 형상화해서 만든 꽃탑.



한뿌리에서 자란 소국을 길 게 늘어뜨리는 현대대작.



10여가지 색깔의 소국을 이용한 '한반도'



한 뿌리에서 뻗어나온 대국을 이용해 만든 다륜대작.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동림2지구' (Donglim 2-dong) featuring a 100-pyeong residential complex with a hospital, school, and shopping mall.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금보부동산컨설팅' (Geombo Real Estate Consulting) offering various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민음공인중개사' (Minum Public Broker) listing properties for sale and rental.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홈컨부동산' (Homecon Real Estate) featuring a research center and various property list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부동산컨설팅' (Daerin Real Estate Consulting) offering restaurant and school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중개법인 리치부동산관리' (Riche Real Estate Management) offering property management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옥션코리아 법원경매' (Oxion Korea Court Auction)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auction.